

광양 2분기 기업경기 전망 ‘흐림’

BSI 79.6P…전분기 대비 하락

원자재가 상승·금리인상 등 리스크

“‘성장 강화’ 경제정책 무게중심을”

광양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3월 7일까지 조사한 ‘2023년 2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79.6P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1분기(82.5P) 대비 2.9P 낮은 것으로 6분기 연속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100 이하를 기록해 여전히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73.9P이며, 전남은 79.1P로 집계됐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재경기감각을 수치화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100 미만이면 반대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함을 의미한다.

2023년 상반기 사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원자재가격 상승’(38.9%)과 ‘물가·금리인상’(38.0%)를 꼽았으며, ‘원부자재 수급 불안’(7.4%), ‘고물가로 인한 소비둔화’(6.5%), ‘주요 수출국 경기침체’(5.6%), ‘미중갈등과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2.7%), ‘기업부담 법안 입법’

(0.9%) 순으로 답했다

중국이 작년 12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리오프닝, 경제활동 재개에 나섬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작용 있지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59.3%), ‘영향 없음’(22.2%), ‘큰 도움이 됨’(9.3%), ‘도움되지만 전체적으로 부작용이 큼’(7.4%), ‘부작용이 매우 클 것’(1.8)으로 답해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매출, 수익 등 경영실적에 미칠 영향으로 절반이상이 ‘영향없음’(55.7%), ‘긍정적인 효과 있을 것’(29.6%), ‘부정적인 효과’(11.0%), ‘이미 긍정적인 효과 발생’(3.7%)로 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중국으로의 수출물량 증가’와 ‘중국산 부품소재 조달로 공급망 안정’이 각각 35.3%를 차지한 가운데 ‘중국진출기업 가동 정상화’와 ‘물류차질 완화’가 각각 11.8%, 기타 5.8% 순이었다.

별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절반 이상이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56.8%)을 꼽았으며, 이어 ‘대중국 수출 증대효과 크지 않을 것’(37.8%), ‘중국내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5.4%)이었다.

중국의 상품 생산은 팬데믹 이후 해외 소비 확대의 영향으로 이미 추세보다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은 반면 소비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리오

프닝 이후 1년간 중국의 소비가 20% 이상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중국에서 대단한 리오프닝 효과가 발생할 거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정부가 다른 나라보다 강한 코로나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는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가능할 수 있다.

향후 대중국 사업은 대다수인 90.7%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며, 중국의 리오프닝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필요한 과제로 우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한중관계 개선’(42.3%)과 ‘미중갈등과 같은 대중국사업 불확실성 해소’(35.6%)를 꼽았고 이어 ‘수출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13.6%), ‘중국 내 무역장벽·기술규제 완화’(6.8%), ‘중국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애로 해소’(1.7%)를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양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역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 시장은 고물가 및 고금리에 따른 가계 구매력 감소와 미래 불확실성 확대로 침체 국면에 장기화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품목·시장별로 수출 경기가 뚜렷하게 양극화되는 모습이고 우리 주력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에 의해 수출 경기의 회복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물가 안정’ 보다 ‘성장 강화’를 위한 경제정책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장흥,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확보 총력

TF 회의서 인구활력 방안 모색

장흥군은 최근 인구감소 대응대책 마련과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연 1조원 규모로 10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내실 있는 투자계획 수립과 인구활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장흥군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TF를 정비해 단장(부군수 조석훈) 포함 기존 26명의 구성원에서 29명의

로 확대 개편됐으며 ▲지역경제관광 ▲입주·정착 ▲정주여건개선 ▲출산·의료·교육 등 4개 분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번 TF 회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및 투자계획 설명, 기금사업 추진상황 및 24년 제안사업 보고를 통해 사업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추진중인 기금사업의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미비점 개선과 보완을 통해 기금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모색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맞춤형 인구증가 시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장흥=이옥현 기자



보성군이 오는 5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보성판소리성지에서 ‘토요상설 락(樂)’ 공연을 펼친다. /보성군 제공

보성, 매주 토요일 ‘우리 소리’ 알린다

5월까지 ‘토요상설 락’ 공연

보성군은 오는 5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보성판소리성지에서 ‘토요상설 락(樂)’ 공연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연 장소는 보성판소리성지 전수교육관 2층이며, 주요 프로그램은 상설공연(창극, 퓨전극, 판소리)과 체험 놀이다.

올해 공연에는 3월 창단한 보성군립국악단이 직접 공연에 참여할 뿐 아니라, 타악그룹 열쑤,

(사)구례한계절풍류보존회, 호남연희예술단 등의 전통판소리 공연은 물론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 낼 창극, 퓨전극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판소리성지는 판소리 전수교육관, 비조 박유전선생 기념비, 판소리 전시관, 판소리 다섯마당, 야외마당, 정음민 생가, 탐방로 등이 있으며 주변에는 보성차밭과 울포술밭해변 등의 관광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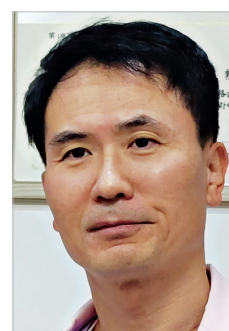
/보성=백종두 기자

김성훈 병원장, 장흥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장흥군은 최근 장흥 김성훈이비인후과 김성훈 병원장(사진)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5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납부하는 사회복지공동체모임 고액기부자 모임이다.

김 병원장은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과 생활품을 지원해 지역의 나눔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김성훈 병원장은 “장흥지역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후원을 해왔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최근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0회 한국난 명품 전국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사진은 전시회 기념 커팅식 모습. /화순군 제공

화순, 제30회 한국난 명품 전국대회 성료

화순군이 최근 하니움문화스포츠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제30회 한국난 명품 전국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화순군이 주최하고 (사)한국난문화협회(이

사장 임순영)와 화순난연합회(회장 양위승)가 공동 주관한 이번 전시회는 한국난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난 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마련됐다.

전국의 애란인, 동호인 등 3,000여 명이 관람한 이번 전시회에는 700여 점의 한국 춘란, 풍란, 석곡, 회귀란 등이 출품됐고, 98점의 작품 시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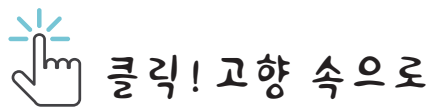
대상에는 이철희씨(경기협회)가 출품한 황화소심(보름달)이, 최우수상에는 안중수씨(경북협회)의 활화소심(금관), 오순철씨(제주협회)의 주금소심(태홍소)이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전시회의 대상 시상금은 전국 최고 금액인 2,000만 원으로 전국 각지의 명품 난이 대거 출품돼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군은 우수작 시상금을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전시장 내에 지역 농·특산물 판매 부스를 마련하여 농가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됐다.

이와 함께 화순팍 홍보부스를 설치해 전국에서 찾아온 관람객들에게 화순의 청정 농·특산물을 널리 알려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화순=이종백 기자



장흥 부산골프회,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장흥군 부산면은 최근 재경부산골프회원들이 고향사랑기부로 지역발전에 힘을 보탰다고 22일 밝혔다.

재경부산골프회는 장흥군 부산면 부산초등학교 및 부산동초등학교 동문 60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매년 정기모임을 통해 고향 발전을 위한 힘을 모으고 있다.

이번 정기모임에서는 방지영 부산

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하며 응원했다.

부산동초등학교 16회 동문인 이영회장은 “항상 고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왔는데, 고향사랑기부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회원들과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이옥현 기자



(주)현대제철 순천공장 봉사대, 장학금 전달

순천시는 최근 (주)현대제철 순천공장 한빛회 봉사대(회장 김종락)에서 관내 저소득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순천시에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초·중고 학생 20명에게 매월 10만 원 씩 1년간 지원된다.

김종락 한빛회 회장은 “장학금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본인의 꿈도 펼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꾸준한 기부가 쉽지 않은데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순천=박경식 기자



광양상의, 육군 제7391부대 격려 방문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이백구)가 최근 육군 제7391부대를 방문해 지역방위와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격려 방문에는 광양상공회의소 부회장인 (주)세명기전 안운봉 대표이사, (주)아쿠아텍 박양훈 대표이사, (주)백제 이용재 대표이사, (주)OCI 광양공장 표상희 상무가 동행해 정성스

레 준비한 간식과 음료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백구 회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과거 태풍 등 지역사회 재난 발생 때 신속한 대민 지원으로 협력해준 덕분에 시민과 기업인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